

-아/어 마땅하다

당연히 그럴 만하다, 마땅히 ~해야 한다

무언가가 받아야 할 대우에 대한 판단입니다. 마땅하다는 알맞다, 당연하다는 뜻으로, 그 대우가 사안에 걸맞다고 단언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 ㅏ 또는 ㅑ	-아 마땅하다	받다 → 받아 마땅하다
그 밖의 모음	-어 마땅하다	물려서다 → 물려서 마땅하다
하다 동사	해 마땅하다	처벌해 마땅하다
명사 앞	-아/어 마땅한	비난받아 마땅한 행동
자주 쓰는 동사	피동형	비난받다, 칭찬받다
부사로	마땅히	마땅히 책임져야 한다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-아요/어요 규칙을 따릅니다: 받아 마땅하다, 칭찬받아 마땅하다, 물려나 마땅하다.

동사는 매우 자주 피동형입니다. 비난받다, 칭찬받다, 처벌받다, 존중받다. 주어가 자신이 받는 대우를 받을 만하다는 뜻입니다.

긍정과 부정 양쪽 모두 가능합니다: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은 비난, 칭찬받아 마땅한 성과는 칭찬입니다. 중요한 것은 판단 자체이지 그 방향이 아닙니다.

사실이나 격식 있는 논증에서 쓰는 문체입니다. 마땅히를 단독 부사로 써도 됩니다: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.

■ 예문

- 1 그런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.
- 2 오랜 노력의 결과이니 칭찬받아 마땅하다.
- 3 책임이 있는 사람은 물려나 마땅하다.
- 4 비난받아 마땅한 결정이었다고 본다.
- 5 손수 만든 정성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.
- 6 오랜 헌신이었으니 예우받아 마땅합니다.

■ 비교

-(으)ㄹ 만하다
만하다는 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, 마땅하다는 그럴 만한 당연한 결과라는 뜻입니다. 가치 대 당위입니다.
칭찬할 만해요. (칭찬할 가치가 있다) / 칭찬받아 마땅하다. (칭찬받는 것이 당연하다)

-(으)ㄹ 법도 하다
법도 하다는 이해할 수 있다는 공감을 나타내고, 마땅하다는 그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립니다.
화가 날 법도 하다. (이해할 만하다) / 비난받아 마땅하다. (당연한 대가다)

-(으)ㄴ/는 법이다
법이라는 일이 원래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, 마땅하다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를 말합니다. 서술 대 규범입니다.
노력하면 되는 법이다. (원래 그렇다) / 칭찬받아 마땅하다. (그래야 옳다)

■ 주의

- ✗ 그 영화는 봐 마땅합니다.
- 그 영화는 볼 만합니다.
마땅하다는 가치가 아니라 당연한 대가에 관한 표현입니다. 추천할 때는 만하다가 맞습니다.
- ✗ 비난받아 마땅하고 행동이었다.
-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었다.
뒤의 명사를 꾸밀 때는 마땅한을 씁니다.
- ✗ 아, 개 비난받아 마땅해.
- 아, 개 그런 소리 들어도 싸.
마땅하다는 사실체 표현입니다. 대화에서는 더 평이한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.